

제주 스포츠 꿈나무들 하계 열전 돌입

축구·야구·씨름·배드민턴 등 전국대회 출사표 방학기간 맞아 경쟁자들과 맞대결로 실력 검증

제주 스포츠포꿈나무들이 전국의 내로라하는 경쟁자들과 자웅을 겨루며 실력을 검증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올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축구, 야구, 배드민턴, 육상 등 종목별로 각급 학교 및 클럽 팀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해 열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축구는 고등부인 경우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0회 백록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7월16~31일)에 5개 고교가 참가해 기량을 선보였다. K리그 U18 챔피언십(7월16~28일)에는 제주유나이티드 U18이 출전해 일전을 벌였다.

중등부는 오는 8월6일부터 18일까지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에 학

교 및 클럽 팀들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K리그 U15 챔피언십에는 제주유나이티드 U15인 제주중이 출격한다.

초등부는 양산시 축구페스티벌(7월26~31일)과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8월11~16일) 및 금강대기유소년축구대회(8월2~7일)에 참가해 실력을 평가받게 된다.

여초부는 오는 27일부터 8월9일까지 경남 창녕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도남초와 노형초가 나설 예정이다.

야구인 경우 신광초가 지난 23일 U-12 전국 유소년야구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평가받았다. 제주도내 유일한 중·고교 팀인 제주제일중과

제주고는 각각 제52회 대통령배 야구대회(8월6~15일), 제56회 대통령배 대회(8월1~13일)에 참가해 각각 부산 대동중과 마산 용마고와 첫 대결을 펼치게 됐다.

경북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9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7월21~27일)에는 재릉초와 한림초, 한림중, 남녕고 선수들이 씨름판의 왕좌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초·중·고교 배드민턴 팀(동광초, 남광초, 사대부중, 제주여중, 사대부고, 제주여고)들도 경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전남 화순에서 열리는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초등 26~31일, 중고 8월12~19일)가 결전의 장이다.

이어 8월16일부터 22일까지 충북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전국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와 한국중고연맹회장기(8월27~9월6일)

에 참가하게 된다.

전남 영광에서 치러지고 있는 제77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7월22일~8월1일)엔 서귀포클럽이 초등부에 참가해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펼쳐보인다.

유도는 지난 18일과 21일 태국에서 치러진 2022 아시아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에서 이현지(제주시중)와 오상우(남녕고)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7월23~18일, 전북 전주, 충남 금산군)엔 제주동중과 영주고 참가해 선전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8월11일부터 15일까지 충북 보은에서 열리는 제51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겸 제10회 추계 전국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도 제주의 대표선수들이 혼합 레이스를 펼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세계신기록 '포효' 24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 허들 결승전에서 세계 기록을 수립하며 1위로 골인한 나이지리아의 토미 아루산(25)이 기쁨의 세리머니를 펼쳐보고 있다. 아루산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신기록 상금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도 획득했다.

연합뉴스

벤투호, 동아시아컵 4연패 도전

내일 운명의 한일전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축구 최강 타이틀을 놓고 운명의 한일전을 펼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7일 오후 7시 20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을 상대로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중국(3-0 승), 홍콩(3-0 승)을 상대로 2연승을 달린 한국은 4개국(한국·일본·중국·홍콩)이 폴리그로 우승팀을 결정하는 이번 대회

선두(승점 6)를 달리고 있다.

2차전에서 중국과 무승부에 그친 2위(승점 4·1승 1무) 일본과 비기기만 해도 대회 4연패를 달성한다.

동아시아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모두 유럽파를 소집하지 못하고 국내 파 선수들만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따라서 이번 한일전은 K리그와 J리그의 '토종 올스타'가 맞붙는 양상이어서 두 리그 수준을 간접 비교할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일본과 역대 전적에서 42승 23무 15패로 앞선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전적을 놓고 보면 6승 7무 5패로 백중제다.

연합뉴스



임성재, PGA 투어 3M 오픈 '준우승'

임성재(24·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M 오픈(총상금 750만 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임성재는 25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이크인의 TPC 트윈시티스(파71·743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기록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의 성적을 낸 임성재는 에밀리아노 그리요(아르헨티나)와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임성재로서는 이번 시즌 들어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 우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다. 임성재는 6월 초 메모리얼 토너먼트 공동 10위 이후 약 2개월 만에 '톱10'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

“LG의 창이나, SSG의 방패냐”

프로야구 전망대… 영업 외국인 선수들 첫선

프로야구 선두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 차례로 인천에 뜬다.

지난달 24일 입국 이후 한 달 이상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한국 야구에 적응력을 키운 LG의 스위치 히터 로벨 가르시아(29)가 26일부터 사흘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SSG와의 방문 경기에 첫 선을 보인다.

가르시아는 퓨처스(2군)리그 두 경기에 출전해 6타수 2안타에 타점과 득점을 1개씩 올리며 출전 채비를 마쳤다.

SSG의 새 좌완 투수 손 모리만도(30)와 우타자 후안 라가레스(33)도 이르면 27일 1군에 동시에 올라와 LG를 상대로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다.

대만프로야구에서 뛰다가 온 모리만도는 19일 독립야구단과의 연

습 경기에 등판해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라가레스도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실전 감각을 가다듬었다.

전체 일정의 61%를 마쳐 정규리그 중반을 준비하는 국면에서 재외국인 선수의 활약상은 앞으로 SSG와 LG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모리만도와 라가레스가 연착륙하면 SSG의 공수 조지력은 훨씬 강력해진다. 특히 모리만도가 월터 폰트, 김광현과 3선발로 위용을 갖추면 노경은, 이태양 등 그간 선발로 맹활약 한 투수를 볼펜으로 돌려 허리춤을 보강할 수 있어 마운드 전체 전력에 상승한다.

최근 8연승을 질주한 SSG는 1승을 보태면 시즌 60승에 선착한다. 또 SSG를 6.5경기차로 쫓는 3위 LG는 이번 3연전에서 두 팀의 격차를 좁혀 선두 경쟁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미팅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11: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1:20 이슈 픽 백과 함께 스페셜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길에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8:10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 내 인생(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미남당(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다큐 M 스페셜 8:50 비밀의 집(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4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15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1:45 프린세스 바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랜 인 블랙박스 스페셜 15:50 직업탐구 발발이다2 16:40 당동당 유처리 18:00 생방송 뚝딱지 해결단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45 띠띠뽀 띠띠뽀 8:00 당동당 유처리 8:50 슈퍼두퍼 일글리시 9:40 우리집 유처리 13:50 EBS 다큐프라임 15:50 직업탐구 발발이다2 16:40 당동당 유처리 18:00 생방송 뚝딱지 해결단 19:50 극한직업
KCTV				
7:00 KCTV 뉴스 8:00 여왕의 레시피 8:30 탐나는 보이스 9:00 KCTV 뉴스 9:30 남민을 고향리 10:00 여왕의 레시피 11:20 재주ING 18:30 탐나는 보이스 20:00 재주ING				
제주CBS FM 93.3MHz 90.9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뉴스종합뉴스 14:05 송미령의 속삭임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생명의 섬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관송부				
TBN제주교통 FM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2:00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20:00 탐나는 가요				
18:00 6시 내교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30 오라차 내 인생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시사기획 창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황금어장 20:30 박원숙의 같이 살시다 21:50 미남당 23:00 오케이! 오케이!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비밀의 집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호적메이트 22:30 PD수첩 23:30 100분토론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3:30 키타스틱 패밀리 DNA 싱어(재)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6일


 김종상 지단(組頭)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48년 경쟁자 또는 상대자로 인해 피곤. 전문직은 인정받고 일이 많아진다. 60년 함께 모여 기쁨이나 정보를 얻게 된다. 술은 자제하고 유머가 필요한 날. 72년 집안이 근심이 있으니 안부전하나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 84년 친구 따라 가서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37년 계획을 벗어난 행동을 취하면 구설이 된다. 49년 계획한 일에 차질이 오니 다음으로 미뤄라. 61년 좋은 조건이나 유리함이 있다고 성급한 변동. 이들 보다는 신중함이 이득이다. 73년 문서와 관련된 업종은 꼼꼼함과 신중함 필요. 철저한 재확인 요망. 86년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38년 위장에 탈이 날 수 있으니 음식에 주의해야 한다. 50년 집착하면 오히려 일이 막히니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62년 뜻밖에 귀인을 만나거나 행운이 따른다. 74년 갑작스런 일에 놀라거나 걱정스런 소식을 접하니 스트레스 극히 조심. 86년 부모님이 걱정하니 편안하시도록 전화를 드려라.

39년 방해자가 있어도 지혜롭게 극복하면 순조롭다. 51년 만남에 참석한다. 공동의 관심사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하라. 63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되니 여유와 신중함이 필요한 날. 75년 새로운 계획 창출. 의욕이 강하다. 하지만 무리한 작업이나 계약은 금물. 87년 집중력 있는 시간대에 공부하고 휴식도 챙기길.

40년 음주는 적당히. 자녀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52년 자녀를 위한 일이나 금전문제로 신경전이 생기니 미리 준비를. 64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부애정 문제에 배려 필요. 76년 직장, 이성문제는 순조롭고 기쁨이 따르니 약속이 이뤄지면 만나라. 88년 모임 등에서 튀고 싶어한다. 조금은 자중하라.

41년 전문성이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된다. 53년 의욕에 비해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65년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영역이 넓어진다. 개인사업자는 유리. 77년 갈증이 많이 나니 수분 또는 야채섭취가 필요. 술은 적당히 마셔라. 89년 인적자원이 절실하고 융통성이 없으면 대인관계를 넓혀라.

42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54년 이익이 발생 되고 활동도 넓어진다. 66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78년 업무량이 늘고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업무 능력은 인정받는다. 90년 분실 또는 건강증이 올 수 있다. 외출 시 물건, 지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43년 신경계통 또는 시력이 떨어지니 운동도 필요하다. 55년 상대가 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해주니 이별 때일 수록 책임완수가 필요하다. 67년 과장된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다가 들통이 날 수 있다. 79년 자신이 생기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점차 노력한다. 91년 행복도 불만도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44년 사업장이나 활동에 능률이 저하되거나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56년 음식업이나 손으로 하는 업은 인기가 많다. 68년 활동량이 많아지고 생산이 증대되니 또한 기쁘다. 80년 경쟁하지 마라. 자존심이 상한다. 이 거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92년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으로 이상이 오거나 근육통이 생긴다.

45년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도란을 조심하라. 57년 영업에 이익이 있고 동료자나 친구가 생기기도 한다. 69년 반갑 반환이 있으니 오후 늦게 약속이 생기면 정중히 거절하라. 81년 친하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불화하거나 이성간에 의견 마찰로 헤어짐도 있다. 93년 친구들 문제로 마음 상하고 고민이 많다.

46년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인맥을 한탄한다. 58년 가까울수록 예의와 신용이 중요하니 친하다고 막말을 하면 신뢰가 추락. 70년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뒷사람에게 공손하라. 82년 취임이나 시험에 불리하니 중요한 사안은 다음으로 연기하라. 94년 친구와 함께 나눠 먹을 일이 생긴다.

47년 문상, 병문안 갈 일이 생긴다. 술은 자제 필요. 59년 부족함을 채우려고 갈망한다. 이성, 직업에서는 무난하다. 71년 직접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주변에서 자문을 구하라. 83년 분실 또는 건강증이 올 수 있다. 외출시 중요한 사안은 다음으로 연기하라. 94년 친구와 함께 나눠 먹을 일이 생긴다.